

‘V11’ 환희 잊었다...2018 다시 댈다



KIA 김기태 감독이 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2018 스프링캠프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선수단 스프링캠프 마치고 귀국... 13일부터 시범경기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18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던 ‘호랑이 군단’은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선수단은 1월 3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2월 1일부터 37일 동안 스프링캠프를 소화했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

행했으며, 체력 및 기술훈련으로 몸을 만든 선수단은 14일 일본 라쿠텐과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준비에 나섰다. 우선으로 취소된 LG 트윈스전을 제외하고 한국 및 일본 팀과 모두 11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으며, 전적은 4승 7패다. 오키나와 캠프를 이끈 김기태 감독은 “이번 스프링 캠프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고생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에게 고맙다”며 “선수들 모두 지난 시즌 우승의

환희는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캠프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KIA 타이거즈는 맛있는 팀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2018시즌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타이완에 스프링캠프를 꾸리고 훈련을 해왔던 퓨처스 선수단은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귀국 후 하루(9일) 휴식을 취하게 되는 1군 선수단은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시범경기 준비

에 나선다. KIA는 13-14일 두산 베어스에 이어 15-16일 넥센 히어로즈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이후 16-17일 대구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하고, 20-21일에는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개막 엔트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8시즌 개막전은 오는 24일 치러진다. 안방에서 새 시즌을 여는 KIA는 kt 위즈를 상대로 통합 2연패를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김문철 북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단장(가운데) 등 북한 선수단이 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선수촌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입촌하고 있다. /연합뉴스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 드립니다”

북 패럴림픽 선수단 입촌



북한 장애인대표팀 선수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문철 북한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장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전했다.

김문철 단장 외엔 선수단 구성원 누구도 취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선수촌에 입촌한 북한 대표팀은 8일 오전 10시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선수단과 함께 공식 입촌식을 한다. 북한 대표팀은 장애인 노르딕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 김정현 등 두 명의 선수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 생인 김동영 등 참관 선수 4명도 함께 방남했다. 북한 장애인대표팀 선수단장인 정원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도 선수촌에 입촌했다. 북한이 동계패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문철 단장 외엔 선수단 구성원 누구도 취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선수촌에 입촌한 북한 대표팀은 8일 오전 10시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선수단과 함께 공식 입촌식을 한다. 북한 대표팀은 장애인 노르딕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 김정현 등 두 명의 선수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 생인 김동영 등 참관 선수 4명도 함께 방남했다. 북한 장애인대표팀 선수단장인 정원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도 선수촌에 입촌했다. 북한이 동계패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마운드 동반 활약 위해 ‘밸런스’ 잡자”

‘순천 콤비’ 투수 이민우·이종석 ‘10년만에 재회’

이민우 선발 테스트 “구속 욕심에 힘 들어가”

퓨처스 구원왕 이종석 “구속·자신감 찾을 것”

10년 만에 한솥밥을 먹은 ‘순천 콤비’가 KIA 마운드의 두 축을 노리고 있다. 투수 이민우와 이종석은 오키나와 캠프의 ‘단짝’이었다. 훈련 시간에 실과 바늘처럼 움직인 두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꽃을 피운 룸메이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옛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순천북초와 순천이수중에서 프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친구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렸다. 이민우가 순천 효천고 선수로 뛰었지만, 별교제일고로 간 이종석은 클러브를 내려놓았다. 이후 대학 시절 두 사람은 변화의 시간을 보냈다. 이민우가 포수에서 투수로 변신한 뒤 경성대의 에이스로 맹활약했고, 이종석은 세한대 선수로 다시 마운드에 섰다. 그리고 2015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민우가 우선 지명, 이종석이 2차 3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두 친구가 다시 KIA에서 동료가 됐다. 한팀은 됐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민우가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하며 공익근무를 하게 됐고, 이종석은 2016년 경찰청으로 떠나면서 3년 동안 두 사람은 동료지만 동료가 아니었다. 두 친구는 마침내 올 시즌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입단 후 처음 맞은 1군 스프링캠프이기도 하다. 지난해 프로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두기도 했던 이민우는 이번 캠프에서 선발

후보로 테스트를 받았고, 지난해 가을 제대한 이종석은 2016시즌 퓨처스 구원왕 출신 경력을 앞세워 KIA 마운드에 힘을 실어준 새 전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민우는 “캠프 초반에는 러닝 등 체력적인 훈련이 힘들기는 했지만 캠프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좋았다”며 “친구랑 함께 해서 더 좋았다. 방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놀이도 즐기고 다짐도 했다. 종석이가 정말 열심히 하니 나도 따라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석도 “둘이 투구폼도 봐주고 야구 이야기를 많이 했다. 친구지만 라이벌이기도 하다. 둘 다 잘해서 1군에서 같이 활약을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친구와 함께한 첫 캠프를 돌아봤다. 야심찬 캠프였지만 두 사람은 ‘동반 활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밸런스’라는 숙제를 안고 돌아오게 됐다. 이민우는 “지난해 1군에 와서 이상하게 제구가 잘됐다. 그런데 대학 때 150km를 던지기도 했던 만큼 스피드를 비슷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욕심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갔다.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그걸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도 “경찰청에서 뛰면서 타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등 많이 배웠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밸런스가 안 좋아졌다. 구속이 경찰청 때보다 덜 나오고 있다”며 “구속을 찾고 자신감도 찾아야 한다.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순천에서 야구를 시작한 ‘질친’ KIA 이종석(왼쪽)과 이민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미~” 女컬링 청소기 모델 됐다

LG전자, 4년간 공식 후원도

“영미! 우리 청소기 광고모델 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김(Team Kim)’이 청소기 광고모델로 데뷔한다. LG전자는 7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팀을 공식 후원한다”면서 “앞으로 4년간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전자는 여자 컬링팀을 무선 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광고모델로도 기용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 공개될 ‘LG 코드제로’ 광고의 새 모델로 출연해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과 로보청

소기 ‘코드제로 R9’, 무선 진공청소기 ‘코드제로 T9’ 등 ‘LG 코드제로 ART 시리즈’를 소개한다. 여자 컬링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선전을 거듭하면서 청소기 광고모델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 바 있다. 독특한 스토리와 경기스타일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큰 화제를 모은다. 컬링 경기에서 사용되는 장비인 ‘스톤’과 ‘브룸’이 각각 로보청소기, 무선청소기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청소기 모델로 적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경기 중에 김영미 선수가 “우리 팀이 메달을 따면 청소기 광고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자 김은정 선수가 “요즘엔 로보청소기가 나와서 틀렸어”라고 농담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 스포츠 미래 불투명...정부 지원을”

대표팀 “슬라이딩센터 폐쇄·상비군 해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수확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대표팀의 이용 총감독과 은메달을 딴 봅슬레이 4인승의 원윤종-전정민(이상 강원도청)-서영우(경기BS경기연맹)-김동현(강원도청)은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총감독은 “앞으로 슬라이딩센터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발언을 연 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2016년 10월 완공됐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공식 인증을 받은 전 세계 16개 트랙 가운데 최신편, 평창 올림픽 봅슬레이, 스킨레이, 루지 등 스포

츠 경기장이 이곳에서 열렸다. 이 총감독은 “정부가 경기장 활용에 대한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세운 만큼 선수들이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팀의 ‘말형’인 원윤종도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슬라이딩센터가 폐쇄되면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한국 봅슬레이 스킨레이가 죽어버릴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최근 ‘상비군 해산’ 통보도 받았다. 이 총감독은 “어제 대한체육회에서 등록 선수가 적어 상비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며 “상비군·전주자가 현재 대표팀 선수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산하면 종목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연합뉴스